

“업계 최대 적립” SSG닷컴, 장보기 시장 1위 탈환 승부수

신규 멤버십 ‘쓱세븐클럽’ 선포
결제 금액 7% SSG머니로 적립
월 구독료 2900원…OTT 옵션도

SSG닷컴이 ‘업계 최고 적립률’을 앞세운 신규 멤버십 ‘쓱세븐클럽’을 론칭하며 장보기 시장 주도권 탈환에 나섰다. 복잡한 혜택 구조를 대폭 단순화하고 직관성을 강화한 이번 승부수가 치열한 이커머스 멤버십 경쟁의 판도를 흔들지 주목된다.

SSG닷컴은 최근 쓱세븐클럽 출범을 알리고, 이달 14일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인 ‘쓱 장보기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쓱세븐클럽은 월 구독료 2900원을 내면 쓱배송(주간·새벽·트레이더스) 결제 금액의 7%를 SSG머니로 적립해주는 멤버십이다. 경쟁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월 4900원, 최대 5% 적립)과 비교해 연회비는 낮추고 적립률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번 멤버십의 핵심 키워드는 단순성과 강력한 보상이다. SSG닷컴은 “복잡



SSG닷컴이 신규 멤버십으로 선보이는 쓱세븐클럽 모습

/SSG닷컴

한 건 질색’이라는 슬로건과 자체 캐릭터 ‘쓱칠이’를 내세워 혜택의 직관성을 강조했다. 이는 구매 금액별 할인율이 상이하거나 VIP 조건이 까다로워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기존 ‘신세계 유니버스클럽’과 ‘쓱배송클럽’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두 멤

버십은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업계에서는 단순함과 보상을 강조했다. SSG닷컴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 전라점이 유사하다는 평이 나온다. 기본 적립 혜택에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해 고객을 잡아두는 방식이 낡았기 때문이다.

차별점은 적립 한도에 있다. 네이버는 월 20만원 결제분까지만 5% 적립을 적용하는 반면, 쓱세븐클럽은 월 적립 한도를 5만원으로 넉넉하게 설정했다. 결제액 기준 약 7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타사 대비 고적립 구간이 2배 이상 넓다. 이외에도 신세계백화점몰·신세계몰 전용 7% 및 5% 할인 쿠폰을 매달 2장씩 지급해 쇼핑 혜택을 더했다.

오는 3월부터는 OTT 서비스 ‘티빙(TVING)’ 이용권도 선택 옵션으로 도입된다. 티빙이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과 KBO(한국프로야구) 뉴미디어 중계권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야구 시즌 개막과 맞물려 강력한 ‘킬러 콘텐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장보기 멤버십 최강자로 안착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있다. 가장 큰 약점은 ‘무료배송 기준’이다. 쓱세븐클럽의 무료배송 최소 주문 금액은 4만원으로 책정됐다. 가격과 상관없이 무료배송을 제공하는 쿠팡 와우 멤버십이나, 무료배송 쿠폰으로 허들을 낮춘 쿠팡 멤버스 등과 대조적이다.

특히 1인 가구나 소량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4만원이라는 기준은 상당한 진입 장벽이다.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상품을 장바구니에 채워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어, ‘가벼운 장보기’ 수요를 흡수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포인트 사용처의 범용성 부족도 아쉬운 대목이다. 온·오프라인 가맹점 어디서나 현금처럼 쓰이는 네이버페이와 달리, 쓱세븐클럽의 SSG머니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등 그룹 생태계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충성 고객을 묶어두는 데는 유리하지만 신규 고객 유입 유인책으로는 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SG닷컴 이명근 영업본부장은 “새 멤버십은 그로서리 부문 성장과 고객 유입을 가속화하고 협력사 판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플랫폼 신뢰도에 차별화된 혜택을 더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독보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SK바이오팜, RPT로 차세대 항암 도전

(방사성의약품)

‘SKL35501’·‘SKL35502’ 임상 승인
“글로벌 임상 개발의 중요한 이정표”

SK바이오팜이 미래 성장 전략인 ‘방사성의약품(RPT)’ 파이프라인을 구체화하고 있다. 전임상에서 임상 진입으로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원료의약품과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RPT 시장 전반에서 리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1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은 방사성의약품 신약 후보물질 ‘SKL35501’과 ‘SKL35502’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임상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2024년 7월 홍콩 바이오텍 플라이프 테크놀로지로부터 해당 물질을 도입한 후 한국에서 전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등 SK바이오팜은 1년 반 만에 빠른 속도로 글로벌 임상 단계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

‘SKL35501’ 임상은 국내 기업이 미국 FDA에서 알파핵종 기반 RPT 분야로 승인을 획득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동일한

IND를 제출해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SKL35501은 항암 치료제다. 대장암·전립선암·췌장암 등에서 과발현하는 수용체 단백질 NTSR1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방사성 동위원소인 악티늄-225(225Ac)가 방출하는 고에너지 알파선으로 암세포 DNA를 파괴한다. 알파선은 도달 거리가 짧고 에너지는 높아, 표적 치료 효과는 개선하면서도 주변 정상 조직에 대한 손상은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임상은 한국과 미국 내 다기관에서 오픈 라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초 인간 대상 임상시험으로 기존 표준 치료에 실패했거나 재발하는 진행성 고형암 환자에서 이뤄진다.

‘SKL35502’는 NTSR1을 표적하는 기전을 활용한 영상진단제다. 하나의 표적·기전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는 동시에 치료하는 ‘테라노스틱스’ 접근법을 적용했다. 조기 진단 및 치료 초기 단계에서부터 맞춤형 정밀 의학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SK바이오팜은 이미 후속 물질도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위

스콘신대학 기술이전기관(WARF)과 라이선스인 계약을 체결해 ‘WT-7695’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확보했다.

SK바이오팜은 선제적으로 원료의약품 공급망도 구축했다. 미국 테라파워, 벨기에 판 테라, 독일 에커트앤지글러 등 글로벌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기업 3곳과 악티늄-225(225Ac) 공급 계약을 맺었다.

아울러 SK바이오팜은 오는 2027년까지 RPT 로드맵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상업화 신약과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잇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인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이번 FDA IND 승인은 SK바이오팜이 RPT 분야에서 글로벌 임상 개발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세노바메이트를 중심으로 한 CNS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 위에, RPT를 차세대 항암 파이프라인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AI 기반 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체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에이피알, CES서 ‘K뷰티테크’ 알렸다

부스터 프로 등 고기능 제품 선포

에이피알은 지난 6~9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기업 부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CES는 매년 미국에서 진행되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로 에이피알은 3년 연속 참가했다. 특히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에이지알’을 비롯해 다양한 신제품과 혁신 기술을 공개하며 글로벌 파트너를 대상으로 ‘K뷰티테크’를 알렸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올해 에이피알 부스는 지난해 대비 약 33%가량 증가한 1600여 명의 방문자를 맞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CES 혁신상에 ‘뷰티테크’ 부문이 신설되면서 뷰티 산업 내 기술 적용 사례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에이피알이 선보인 뷰티 디바이스와 독자 기술이 집중 관심을 받았



‘CES 2026’에서 에이피알 부스를 찾은 방문객이 메디큐브 에이지알 뷰티 디바이스를 체험하고 있다.

/에이피알

다. ▲부스터 프로 ▲부스터 프로 미니 플러스 ▲진동 클렌저 헤드 ▲부스터 브이 롤러 헤드 등 세안부터 기초 케어, 안티에이징 관리까지 아우르는 고기능성 제품들이 경쟁력을 높였다.

관련 기술 및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고 이와 함께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큐브’도 브랜드도 직접 체험 가능해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었다.

/이청하 기자

야간뇨·야뇨증 증상 치료제 공동 판매

한미약품-한국페링제약

한미약품과 한국페링제약은 지난 7일 야간뇨·야뇨증 증상 치료제 ‘미니린정·미니린멜트설하정(이하 미니린)’ 및 야간뇨 증상 치료제 ‘녹더나설하정(이하 녹더나)’에 대한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미니린·녹더나의 국내 공급 유통은 한미약품이 전량 담당하며, 영업·마케팅은 한국페링제약이 종합병원을, 한미약품이 병·의원을 중심으로 각각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약품의 영업·마케팅 범위는 침상 수 30개 이상 300개 이하 규모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오른쪽)와 한국페링제약 김민정 대표가 공동 판매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의 중소형 병원이 폭넓게 포함돼 있어, 실제 야간뇨 환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1·2차 의료기관에서 두 제품의 치료 혜택을 더욱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셀트리온, ‘아이덴젤트’ 특허 전략 차별화

올해 미국 출시 확정하고 유럽 진출

셀트리온은 안과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가 전략적인 특허 대응을 통해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순차적인 판로 확보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셀트리온은 지난해 10월 초 아이덴젤트의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같은 달 오리지널사인 리제네론과 특허 합의

를 완료했다. 특허 합의로 올해 말 아이덴젤트 미국 출시를 확정하고, 특허 분쟁에 따른 비용 소모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앞서 2024년 캐나다에서도 특허 합의를 완료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아이덴젤트 허가를 획득하고, 영국을 비롯해 유럽 주요국 출시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국가별 다른 특허 소

송 현황 등에 따라 차별화한 전략으로 시장 진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기업법원이 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셀트리온의 아이덴젤트가 오리지널 제형 특허(2027년 6월 만료 예정)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셀트리온의 아이덴젤트는 오리지널이 사용하는 인산염(Phosphate) 버퍼(완충제)가 아닌 히스티딘(Histidine) 버퍼를 사용하는 등의 제형적 차별성을 갖추고 있어 오리지널의 제형 특허를 회피한 것으로 회사측은 분석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